

농촌 신 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총력

남원시, 힐링 테마관광지 조성키로

남원시가 '민족의 영산(靈山)인 지리산이 품고 있는 상생과 치유'를 테마로 농촌 신 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농촌 신 활력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기존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는 지리산이라는 지역 특성으로 빼어난 경관자원은 물론 다양한 산림 및 농업자원과 이를 토대로 자생한 민간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 우

위를 가질 수 있는 빼어난 배후 조건을 토대로, 2019년 상반기 농촌 신 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응모해 예비 자구에 선정된 바 있다.

남원시는 수립된 기본 예비계획을 토대로 민관이 합심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에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추가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남원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개선사업 진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리산이 품고 있는 상생의 이미지로

부각시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관한 해결책도 준비하고, 넉넉한 지리산의 품안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힐링(치유)의 대책을 마련해 테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세근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은 더 이상 도시의 생존을 위한 배후지가 아니라면서, 앞으로 시에서는 새롭게 기능할 신(新)농촌의 모습을 사업내용에 담아내고 농촌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활력모델을 그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다 잡는다

3달만에 20억 완판 눈앞... 유통시스템 통해 이동이력 확인 방침

지난 8월 1일 첫 판매를 시작한 순창사랑상품권이 19억 8천만원의 판매액을 돌파하면서 3달만에 20억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군내 높은 가맹점률(95%, 980개소), 빠른 회전시스템, 판매(환전)대행점이 많은 점, 추석 특별할인 10% 등의 편리성이 가맹점주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 상품권 구매가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은 상품권 판매에 따른 부

작용, 즉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상품권유통시스템을 통해 판매에서부터 환전까지 상품권 이동이력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법유통을 일소시킬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로는 부정사용자의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부정가맹점은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조치외에 사법기관 수사외에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판매환전대행점은 대행점 지정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사법기관 수사 및 국제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군은 공명정대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하여 투명한 상품권 운영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품권 이용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유통 없는 투명 상품권 운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사랑상품권은 11월초부터 3차분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판매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주요 성과 핵심사업 집중점검

임실군이 2019 임실N치즈축제의 성료와 동시에 하반기 가지적인 성과 달성과 핵심정책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1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군수 주재로 10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19 임실N치즈축제 종합성과분석 보고와 함께 부서별 핵심사업 50여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각 국·실과

원소장 및 읍면장, 그리고 관련 팀장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심 군수는 임실치즈-육정호-성수산-반려동물로 이어지는 명품 관광벨트 구축과 임실을 행복누리원,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등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를 책임질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임실 아사아사 김장페스티벌 준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71개의 주요 핵심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보다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산집행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이·불용 최소화 사업 추진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업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2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3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문화와 함께

순창군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개최

순창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2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3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군에 거주하는 309세대의 다문화가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어울림예술제와 어울림 운동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순창군 다문화 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이주여성 멘토단 결연식을 진행해, 장기거주중인 다문화 여성이 입국초기 다문화 여성의 조도울 것을 다짐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 음식 체험존이

운영되어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필리핀 이주여성 언니들을 만나서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축사에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감사 지원사업, 다문화화녀 인성·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노후 수도계량기 600전 무상 교체

임실군이 수도를 누수예방과 정확한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관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노후 수도계량기에 대해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교체 대상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달 10일까지 총 사업비 7천7백만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계량기 600전을 무상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를 누수예방 및 계량기 고장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함으로써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교체대상은 관내 전체 계량기

1만2천전 중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600전이다.

수도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구경 50mm 이하는 8년, 그 밖의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교체토록 되어 있다.

한성철 상하수도과장은 "지속적으로 노후 수도계량기를 작기에 교체해 수도 사용량 검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요금부과 신뢰도 향상과 누수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 총력

순창군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인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이사장 황숙주)는 지난 2015년부터 순창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단은 그동안 순창 인계면에 설립된 휴양단지 기반시설과 식생활 문화체험실습관을 구축해 도시민들이 순창을 찾아와 식품과 연계한 힐링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윌랜드를 찾는 교육생이 지난 2016년 937명에서 올해는 3000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총 3억 6100만원의 교육수익도 올리고 있다.

또한 사업단은 아로니아, 오디, 블루베리 등 순창 대표 농특산물을 순창조합 공동사업체와 함께 하나로 유통센터,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가지며 총 21억의 매출과 제철농산물 꾸러미사업으로 2억의 농가 매출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식품관련부서, 식생활 전문가 등 민·관 관계자를 초청해 건강식품 개발 등 식품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10월중에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전 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남원시는 14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예방(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직장남녀연구소 대표인 정미선 전문강사를 초청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특강에서는 젠더폭력 예방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4대 폭력을 구분하고, 4대 폭력은 각각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단순한 이론 전달 방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보건소, 비만예방 캠페인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비만 예방의 날인 지난 11일, 제27회 홍보주제에 참여한 1,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비만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속 건강습관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를 통한 상담, 나트륨과 당류섭취 감소 캠페인을 전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